

욕망과 변화

인간의 욕망은 자기 자신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 너머에 대해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욕망은 정확히 말해 '불완전성'의 대한 의식이다.

따라서 욕망은 가능성, 미래 그리고 “항상 더 많음”, 무한함에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욕망은 우리가 영원히 경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와 영을 지닌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세계 물질적 현실의 세계와 영적 세계로 불리는 다른 세계를 넘나든다.

변화의 현실

영적 여정으로서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는 일상다반사이다.

문제는 안정성, 고정성, 완전한 확실성 또는 원하는 것의 소유함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동, 변화 그리고 불명확함이 일반적이다.

모든 상실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오래 지속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잃어가는 것에 대한 슬픔과 혼란에 너무 자주 사로잡힌다. 그 결과로, 새로운 삶이 먼 미래의 약속 그 이상의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 연기된 어떤 것이 아닌 이미 지금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열쇠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은 움직임에 대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힘이 닿는 곳 너머에 항상 “보다 더”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열려있다.

과도기의 단계들

끊임없는 변화의 현실 안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과도기의 체험이 있다.

과도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두 상황 사이에 경계를 표시한다.

모든 과도기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움직임이나 흐름이 있다.

과도기나 경계 지점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변화의 과정은 하나의 삶의 구조에서 다른 삶의 구조로의 이행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과도기의 과정은 떠남과 도착이 있다.

기다림의 체험은 때로 과거에 붙들었던 안전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고 성장에 대한 욕망의 강도가 증가하는 자리다.

- 과도기 체험에 대한 개관

- ① 처음에 과도기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그저 꿈쩍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간의 친숙한 목표와 일반적인 통제 방식이 우리 손을 빠져나가면서 어안이 병병해진다.
- ②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극심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환상으로부터 탈피가 이루어진다. 이때 어둠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충만한 내려놓는 체험이 일어난다.
- ③ 최종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체험 전체는 내면화될 것이고 우리가 헌신적 방식으로 사는 현실이 된다.

- 과도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 ① 삶은 과도기 체험에 대한 완벽히 파악하고 있을 만큼 정돈되어 있지 않다.
- ② 과도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순전히 심리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하느님 앞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에 깊이 접촉하는 영적 차원을 갖는다.

변화와 약속

욕망을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상태라고 인정하는 영성은 일시성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일시성의 영성은 약속하는 능력 또는 그 욕구와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의 욕망은 항상 의식적 근거가 되는 어떤 것을 찾는다. 다시 말해 약속에 대한 의식이다.

모든 참된 약속은 지켜주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기에 완전한 확실성이란 없다.

우리는 위험성과 일시성의 균형 없이 애당초에 약속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욕망의 진실성과 우리 약속의 초점만을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시성이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얼버무리며 멈추고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인간의 약속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약속에 앞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머릿속에 모든 전제조건을 따져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약속이 아닌 것이 된다.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깊은 약속, 우리가 온전하게 있으려면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가장 깊은 약속의 차원, 그 약속을 형성하는 분이 이 신비로운 우리 자신의 중심에 계신 신비로운 하느님이다.

이 약속의 가장 깊은 차원과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환경 사이의 차이가 있다.

이 환경들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우리의 약속은 항상 적절하게 특정한 환경 또는 관계에 근거하고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인간의 환경이 그 자체로 완벽한 척하는 것은 기만일 수 있다.

약속과 선택은 두 차원을 갖는다. 첫째, 우리는 이를 대함에 진심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약속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적 환경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 환경이 항상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의 결심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함에 있어 가장 극심한 시험은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충실한 유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이성적으로 보이도록 드러날 때 발생한다.

회개

변화에 대한 부르심은 또한 우리와 우리의 욕망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도전,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사이에 선택하라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다.

변화가 한 순간이 아닌 과정인 것처럼 회개도 그렇게 정적이거나 자족적인 순간이 기보다 정신과 마음이 전개되는 상태다.

회개는 혼돈과 불확실성에서 최종적인 완벽함으로의 단순한 이동이기보다 항상 또 다른 일시성의 상태인 것이다.

영적 여정의 목적지인 하느님은 우리 인식에 있어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체험은 “완성”이라 불리는 산물이 아닌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붙잡음이 아닌 민감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특히 뚜렷한 발전과 눈에 띄는 성공을 찾는 인간적인 지평의 추구를 그만두어야 한다.

회개는 우리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기대가 아닌 “은총의 좌표”에만 오직 응답하도록 이끈다.

회개는 단지 지성적(정신의 변화)이지도 않고, 단지 도덕적(행동의 변화)이지도 않다. 종교적 관점으로 회개는 어떤 정서적 특징을 갖는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의 하느님을 향한 욕망, 그리고 개인으로서 궁극적인 영적 완성을 향한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회개는 단순한 행동양식의 변화라든가 지식의 습득, 새로운 단체에 가입하고자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심오한 특징을 지닌다.

회개의 측면에서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는 변화는 궁극적으로 머리, 마음, 육체 그리고 영, 곧 우리 자신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연관이 있다.

도덕적 의미가 아닌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회개”를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의 삶 안에서 의미와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하셔야 했고, 하느님이신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것에 응답하셨다. 여기에 공관복음에 두 이야기는 그 열쇠가 된다. 예수님의 요르단 강에서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유혹이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회개의 과정으로 작용한다. 하느님께서 세례로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참된 부르심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명의 받아들이심과 유혹 이야기로 특징지어지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뒤를 잇는다. 특히 광야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하느님을 향한 오롯한 전념을 방해하는 자기 위주적인 욕망의 거부에 더하여 완전한 자율적 의식의 자유로운 포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개는 ‘사랑과 욕망’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인간적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 모두 안에서 회개의 과정은 퍼져나가는 것이다. 현실의 중심인 자기를 넘어서 외부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를 포함한 깊은 변화는 철저한 포기이지만 사랑 안에서 포기이다.

오직 다른 사람과 하느님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욕망의 여정

히브리 전통 안에서 탈출기 이야기에 언급된 광야의 방랑이 하느님과의 참된 만나의 시간과 장소였다는 의식과 또 한편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약속은 선택된 땅의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의식 사이게 긴장이 있다.

광야에는 체류하며 살아가는 도시가 없었고, 오직 하느님에게 충실한 마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만남의 새로운 장소로 그 백성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느님이 계셨다.

땅은 성서적 신앙의 중심적 주제다. 이 약속의 땅은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의 표지였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특별히 성전은 하느님 현존의 특별한 방식과 관련되었다.

“모세” 학파의 신학은 정착을 통해 우리 방식에 너무 고착되는 영적 유혹을 예리하게 인식한다. 떠돌며 욕망하지만 결코 종착지 없이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체험이 중심이 되었다.

“다윗” 학파의 신학은 땅을 차지하게 된 체험, 정착한 체험, 성전 예식을 발전시킨 체험을 반영했다. 광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끄는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했던 시험과 고난의 다의적인 상징이었다.

그리스도교가 기반을 두는 성경은 유대인의 패배와 유배, 특별한 성지에서 나라를 세우려다 실패한 체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생겨났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의 사람들”이다.

“그것은 여행자들이 찾고 욕망하는 길의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쳐 가는 여행자이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길의 끝, 곧 우리 삶의 끝이다.” - 성 콜롬반

변화나 여정 같은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활의 장소를 찾는 것”이 열쇠다.

육체적으로 여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과 주위 모든 것과 관계 안에서 변화나 전환에 대한 영속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인간 욕망이 단순히 “이것” 또는 “저것”에 정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했다.

욕망과 영원함

불확실성, 변화, 여정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체험이 필연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확실성의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끈다고 보아야 할까?

관계 안에 존재, 삼위일체로서 하느님의 역동적 특성은 영원의 정적인 관점이 아닌 역동성을 가리킨다.

변화의 중심에 계신 하느님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느님에게는 항상 새로운 측면이 있다.

참된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소유의 포기과 일시적인 통찰을 거듭 체험하는 것이며,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확언은 결코 하느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항상 미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계속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욕망이 우리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힘으로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전통에서 죽음은 세속(temporality)의 종말이다. 세속은 상실과 부패가 지나가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영원함은 절대적 불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맛볼 수 있으나 이 물질적 삶에서 성취될 수 없는 참된 지혜는 “언제나 계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라 불리는 그분의 지식과 사랑이다.”

- 성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에 있어서 욕망이 천국에서 그 목적을 성취할 때 완전한 지식이 뒤따른다. 천상적 지식과 욕망은 같은 실재의 것이다. 곧 사랑이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자라듯, 발견한 그를 향한 추구도 또한 커진다” - 성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는 삶 속에서 친한 친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듯이 그렇게 천상에서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항상 자랄 것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에 전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욕망, 즉 에로스이다. 이것

은 성장과 변화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닌 끊임없는 과정을 암시한다. 사랑은 결코 완성되지 않기에 항상 역동적이다.

사랑은 그 대상에 관한 새로운 “계시”에 영원히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미완성이다.

사랑은 어떤 측면에서도 다른 대상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개방되어 있다. 하느님에 대해 우리는 결코 그분을 함부로 정의하거나 한정 지을 수 없다.

“주님, 당신 위해 우리를 내시었으니,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 성 아우구스티노

우리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찾는다는 아우구스티노의 개념 안에는 역설이 있다. 그 휴식이 우리의 마음 속 욕망이 희미해지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에 대한 통찰이다. 그분을 보고자하는 욕망에 결코 만족하지 말라.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항상 더 보고 싶은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하느님을 향해 등반하는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한계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선의 한계를 찾을 수 없고 선을 향한 욕망의 증가가 만족되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에게 있어서 완성은 정적인 완료에 있지 않고 지속적인 앞으로의 이동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에 대한 “참된”통찰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모든 가능한 통찰은 하느님의 충만함 그 자체에 관련해서 항상 부족하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또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함이라는 것은 니사의 그레고리오와 같은 영성가들이 하느님을 향한 신비적 등반이라고 이해한 것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하느님을 향한 신비적 등반은 세례의 결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르심이다.